Jour. Fish. Mar. Sci. Edu., 23(1), pp.56~66, 2011 水産海洋教育研究, 23(1), 2011

# 교사의 보육효능감과 다문화 보육효능감과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현 정 환†
(서울신학대학교)

# A study of relations between a teacher's nursery efficacy and multi-cultural nursery efficacy

Jung-Hwan HYUN†
(Seoul Theological University)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in analyzing factors related to a teacher's nursery efficacy. In order to achieve its purpose, a study includes investigation about levels of 748 teachers' interest and knowledge in a child nursery from multi-cultural families, teachers' efforts for understanding the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availability of experience with a child care from multi-cultural families, a teacher's multi-cultural nursery efficacy and general nursery efficacy. As a result of investigation, a study found out that 4 factors (interest, knowledge, efforts, and experience) are related to nursery efficacy and the fact that a teacher's general nursery efficacy is highly associated with multi-cultural nursery efficacy. For this result, providing information about a child care from multi-cultural families and supporting general nursery efficacy play a critical role in supporting teachers' competency about a child care from multi-cultural families.

*Key Words : Teacher's nursery efficacy and multi-cultural nursery efficacy, A child nursery from multi-cultural families, Experience with a child care from multi-cultural families*

## Ⅰ. 서 론

우리나라는 이제까지 단일민족, 단일문화라고 하는 의식이 강했지만, 1990년대 초부터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이나 국제결혼이 증가함에 따라 다문화 사회로 변모하고 있다. 특히 국제결혼가정의 경우는 그 증가율이 현저하여, 통계청(2009)의 발표에 의하면 2008년 현재 우리나라의 총 결혼건수 327,715건 가운데 국제결혼건수가 무려 11%에 해당하는 36,20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1990년의 국제결혼건수가 4,710건이었던 것에 비하면 무려 8배나 증가한 수치이다.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국제결혼 증가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다문화 가정의 아동 수도 점점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사회는 다문화에 대한 관

† Corresponding author : 032-340-9351, jhhyun@stu.ac.kr
* 이 논문은 2007년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07-327-B00543).

심이 증대되면서 이에 대한 복지적, 문화적, 교육적, 심리적 측면에서의 지원책이나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학계에서는 다문화 가정의 부모와 그 아동의 적응에 관한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다문화 가정 아동 보육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연구를 살펴보면 그 동향을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다문화 가정의 부모 문제와 관련된 연구이다(구차순, 2007; 문순영, 2007; 신란희, 2005; 최금해, 2005; 임경혜, 2004; 윤형숙, 2004). 여기서는 주로 결혼이주여성의 가정 내 폭행이나 폭언, 경제적 학대 등 인권침해의 실태에 대한 보고와 이에 대한 대책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으며, 동시에 이로 인한 자녀의 성장, 발달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 또한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냄으로서 발생되는 다양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연구도 발견할 수 있다(김갑성, 2006; 현정환, 2008).

둘째, 다문화 가정 아동의 발달이나 적응문제를 다루고 있는 연구이다. 여기에는 언어발달이나 보육시설에서의 적응에 있어 심각성을 지적하는 연구(김갑성, 2006; 김희선, 2007; 정은희, 2004; 오성배, 2007; 오성배, 2005)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일반 아동에 비해 언어문제나 집단생활의 적응, 또래관계 등에 있어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연구(현정환, 2010)도 있다.

셋째, 다문화 가정 아동보육에 있어 교사의 문제와 관련된 연구이다. 여기에는 다문화 교육에 대한 교사의 인식과 그 실태, 교사 교육의 모형 제시 등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정선희, 1997; 장안실, 2003; 이미혜, 2004; 지성애 외 5인, 2006; 한석실, 2007). 한편 다문화 가정 유아의 부모 특성에 기초한 다문화 가정과 유치원 교육 간의 연계에 대한 문제를 교사의 관점에서 탐색한 연구(김경숙, 공진희, 이민경, 2007)도 발견할 수 있다.

그 밖에도 다문화 가정 아동보육에 있어 교사의 고충과 이에 대한 대응책에 관한 연구(김신영, 2003; 박미경, 엄정애, 2007;), 다문화 가정 영유아 보육에 있어 교사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사 양성과정 및 직무 연수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연구나 보고서(박은혜, 조부경, 1997; 양옥승, 임승렬; 대통령자문 빈부격차 차별시정위원회, 2006) 등이 있다.

이상으로 다문화 가정 아동보육과 관련된 이제까지의 연구 동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다문화 가정 아동보육에 있어 교사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그 이유는 다문화 가정 아동의 보육 문제라고 하는 것은 보육(교육)의 장에서 이들을 보육(교육)하고 지도하고 있는 교사의 변인에 따라 그 성과가 다르게 나타날 정도로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Seefeldt, 2005). 오늘날 보육(교육) 시설에서의 다문화 가정 아동보육(교육)이 일반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교사가 다문화 가정이라는 새로운 실체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이들과 상호협력을 통해 유아보육(교육)을 해야 하는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며, 그래서 다문화 가정 아동보육을 하고 있는 교사를 대상으로 이들의 역량을 지원하는 방안을 생각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교사의 문제와 관련된 이제까지의 연구를 보면 주로 다문화 교육을 위해 교사를 어떻게 준비시킬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전에는 다문화 교육이라고 하는 용어 대신에 반편견 교육, 다민족 교육, 국제이해교육, 세계이해교육 등의 용어가 사용되었지만, 다문화 가정보육에 있어 교사의 역량을 지원하는 전략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았거나 이와 관련된 활동이 보육(교육)과정 속에 통합적으로 운영되어 왔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다보니 교사에 대한 지원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고작 다문화 가정의 특성을 파악하고 다문화 가족과 원활한 상호작용을 통해 교육에 부모 참여를 장려하고 가정과 유치원의 효율적인 연계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고 하는 제안이라든지, 문화적으로 다양한 사회에서 교사가 효과적으로 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다문화교육과 관련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의 습득을 강조하는 등 교사의 다문화 교육에 무게 중심이 실려 있는 정도였다고 할 수 있다(한석실, 2007; Ramsey, 1982; Gollnick & Chinn, 1994).

물론 교사에 대한 이런 제안이나 이에 기초한 지원 전략 수립은 그 나름대로 유아의 생활 경험을 풍부하게 하고, 다문화 가정 아동과의 공동체 의식을 갖게 하는 등 편견 없는 교육과정의 실천에 도움이 되겠지만,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가정 유아 보육 상황에서의 교사의 역량에 대한 문제는 기본적으로 교사의 다문화 보육효능감이라고 하는 문제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가정하면서 이것을 조사연구를 통해 그 가정을 실증적으로 검토하고자 하는데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이 있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 얻은 본 연구 결과는 앞으로 다문화 가정 아동보육에 있어 교사의 문제를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고 종래의 지원 전략과는 다른 새로운 지원전략수립에 참고가 되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중요한 키워드인 '효능감(efficacy)'이라고 하는 개념은 Bandura(1977)가 그의 사회적 학습이론에서 인간행동의 규정요인으로 제창한 것으로서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 필요로 하는 행동을 얼마나 잘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예측, 즉 「효능감 예측(efficacy expectation)」이라고 불리고 있는 개념이다. 이 개념과 관련된 이제까지의 연구를 보면 "앞으로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가, 어느 정도 노력할 것인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얼마나 인내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인간행동은 그 사람의 효능감 정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실증적 연구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다(Bandura, 1986, 1997). 이 효능감 개념을 보육장면에 도입하여 교사의 보육효능감이 실제적 보육실천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한 연구도 보고되고 있다(현정환, 2003).

이처럼 교사의 보육실천에 있어 중요한 개념인 '효능감'이라고 하는 것은 교사의 다문화 가정 아동보육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개념인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그리고 이 효능감은 교사가 본래 갖고 있는 보육에 대한 효능감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보육장면에서 교사의 보육효능감은 아동에게 실제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교사의 역량을 평가하는 중요한 잣대이며, 동시에 이 개념은 일반화 (generalization)의 효과도 있기 때문에 교사의 다문화 보육효능감의 강화는 결국 일반 보육효능감의 강화를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이 두 요인의 밀접한 관련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교사의 다문화 보육효능감이 교사의 일반 보육효능감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다문화 가정 아동보육에 있어 교사의 역량을 지원하는 전략을 구상하는데 하나의 의미 있는 가능성을 제공해 줄 수 있다고 하겠다. 즉 교사의 다문화 보육효능감은 일반 보육효능감의 문제와 무관하지 않으며, 이들의 다문화 보육효능감의 강화를 위해서는 종래의 다문화 가정 아동보육의 지원방법이나 내용과는 달리, 일반 효능감에 대한 강화를 통해서도 충분히 효과적인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는 새로운 방향을 제공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교사의 보육효능감이란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며, 다문화에 대한 교사 본인의 관심이나 지식의 정도, 본인이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의 정도, 그리고 다문화 가정 유아 보육 경험의 유무 등의 요인과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예상해볼 수 있다. 이전의 연구에서는 다문화 교육과 관련된 교사의 인식이나 태도(정선희, 1997; 이미혜, 2004; 지성애 외 5인)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교사의 다문화 가정 아동보육 효능감과 이러한 요인들과의 관련성에 대해서 검토하고자 하며, 그 의미는 크다고 할 수 있다. 박미경・엄정애(2007)의 연구에 의하면 다문화 가정유아를 담당하는 교사의 고충 가

운데는 다문화에 대한 교사의 이론적 지식과 경험 부족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다문화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다문화 교육에 대한 교사의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있다. 또한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강의실에서 교수이론을 가르치는 것으로 시작하기 보다는 현장의 현실적이고, 의미 있는 실제를 경험하도록 해야 한다고 하는 주장도 있다(Korthagen, 2001; Brown, Collins, Dunguid, 1989).

본 연구는 다문화 가정 아동보육에 있어 교사의 보육역량에 대한 지원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출발하여 그 지원전략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의의를 두고 있는 만큼, 이런 문제들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래서 본 연구 목적의 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2가지의 연구 문제를 설정하여 검토하기로 하였다.

하나는 교사의 다문화 보육효능감과 일반 보육효능감과의 관련성에 대한 검토이며, 또 다른 하나는 다문화 가정 아동보육에 대한 교사의 관심, 지식, 이에 대한 이해를 위한 노력, 그리고 다문화 가정 아동보육 경험의 유무가 교사의 다문화 가정 유아보육 효능감과 얼마나 관련성이 있는가에 대한 검토이다. 이 검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1, 교사의 다문화 보육효능감은 일반 보육효능감과 관련성이 있는가?

연구 문제2. 교사의 다문화 보육효능감은 다문화 가정 아동보육에 대한 관심, 지식, 노력, 경험의 정도에 따라 각각 어떻게 다른가?

# Ⅱ. 방 법

## 1. 조사 대상자

조사 대상자는 서울, 경기, 인천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현직 어린이집 교사 748명(연령의 폭=24~48세, 평균 34세)이며, 조사 방법은 보육교사 보수교육이나 승급 교육 시에 집단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기도 하고,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직접 교사에게 의뢰하는 형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조사는 2009년 4월~6월에 걸쳐 이루어졌다.

## 2. 조사 내용

조사 내용은 본 연구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크게 2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다문화 가정 아동보육에 대한 교사의 효능감 및 일반 보육효능감에 관한 내용이며, 둘째는 다문화 가정 아동보육에 대한 교사의 관심, 다문화에 대한 교사의 지식, 다문화 가정 아동에 대한 이해를 위한 교사의 노력, 다문화 가정 아동보육 경험의 유무에 대한 내용이다. 이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1) 일반 보육효능감의 척도

보육효능감을 평정하는 척도는 총15항목으로, 여기에는 두 가지 측면을 측정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는 교육적 측면의 지도에 대한 효능감(이하는 교육지도-예, 나는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가르칠 수 있다)이며, 또 다른 하나는 심리적 측면을 지원하는 효능감(이하는 심리지도-예, 나는 아이의 상태가 불안정할 경우,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다)이다.

이 척도는 일본의 三木・櫻井(1998)의 연구에 의해 신뢰도가 검증된 것으로서 Cronbach의 α 계수가 실습 전에는 .83이며, 실습 후에는 .85로서 모두 만족할 만한 내적 일관성을 보였다. 그리고 실습전후의 상관계수는 .62(p<.01)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척도는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이미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鎌樋・樋口・清水(1982)의 Locus of Control 척도를 이용하였다. 이 척도는 18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단계의 평정방법을 채택하였으며, 득점이 높을수록 내적 통제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 결과를 보면 내적 통제경향의 득점과 보육효능감과의 상관관계는 .23(p<.01)으로 유의한 수준을 보였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 및 타당도가 모두 검증된 보육 효능감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각 질문항목에 대한 평정은 그 정도에 따라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1,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편이다-2, 잘 모르겠다(보통이다)-3,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다-4, 상당히 그렇게 생각한다-5」의 5단계로 실시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평정치를 그대로 점수화하여 통계 처리하였기 때문에 수치가 클수록 보육효능감이 높다.

(2) 다문화 보육효능감 척도

본 연구에서 사용한 다문화 보육효능감은 Guyton과 Wesche(2005)가 개발한 다문화적 효능감 척도(Multi-cultural Efficacy Scale: MES)를 기초로 하여 사용하였다. 본래 MES는 Guyton과 Wesche가 1995년에 초안을 마련하고 후속 연구를 통해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한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적 효능감을 측정하는 20문항 가운데서 한국의 아동보육(교육) 현장에 맞지 않는 8개 문항(예, 나는 아이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역사와 사회를 볼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다)을 제외한 12개 문항만을 선택하여 사용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3가지 하위 카테고리로 구성되어 있다. ①수업 지도에 대한 효능감-4문항(예, 나는 다문화 보육에 적합한 학습 자료를 개발할 수 있다), ②또래관계 지도에 대한 효능감-4문항(예, 나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서로 협력, 협동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다), ③다문화 존중 지도에 대한 효능감-4문항(예, 나는 아이들이 타문화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볼 때, 교사의 다문화 보육효능감이란 구체적인 다문화적 보육 상황에서 효과적이면서 능률적으로 보육을 해나갈 수 있다고 하는 교사의 자신감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각 질문항목에 대한 평정은 그 정도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1, 대체로 그렇지 않다-2, 보통이다-3, 대체로 그렇다-4, 매우 그렇다-5」의 5단계로 실시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평정치를 그대로 점수화하여 통계 처리하였기 때문에 수치가 클수록 다문화 보육효능감이 높다고 할 수 있다.

(3)관심, 지식, 노력, 경험에 대해서

4가지의 질문 내용과 이에 대한 평정방법은 각각 다음과 같다.

①관심에 대한 질문-타문화 및 다문화 가정 아동보육에 대한 교사의 관심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한 평정은 4단계로 하였다(매우 있다-그런대로 있다-별로 없다-전혀 없다).

②지식에 대한 질문-타문화에 대한 이해나 지식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에 대한 평정은 4단계로 하였다(상당히 알고 있다-대체로 알고 있다-잘 모른다-전혀 모른다).

③노력에 대한 질문-평소 다문화 가정의 아이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은 어느 정도하고 있습니까? 이에 대한 평정은 4단계로 하였다(상당히 노력하고 있다-그런대로 노력하고 있다-그다지 노력하고 있지 않다-전혀 노력하고 있지 않다).

④경험에 대한 질문-현재 또는 이전에 다문화 가정 아동보육에 대한 경험 유무를 조사하였다.

# Ⅲ. 결 과

## 1. 다문화 보육효능감과 일반 보육효능감의 관련성

보육효능감과 다문화 보육 효능감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피조사자의 보육 효능감의 정도에 따라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으로 나누어서 다문화 보육효능감의 차이에 대한 t검정을 실시하였다. 집단의 구분은 피조사자의 보육효능감의 폭은 1.17~5.00이며, 그 평균은 3.81(표준편차 .54)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 평균치를 기준으로 하여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나누었다. 그 결과, 높은 집단에 속하는 피조사자는 총 320명이며, 이들의 보육효능감의 평균(표준편차)은 4.17(.33)이며, 낮은 집단에 속하는 피조사자는 총 266명이며, 이

들의 보육효능감의 평균(표준편차)은 3.37(.40)로 각각 나타났다. 분석 결과,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보육효능감이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에 비해 전체 다문화 보육효능감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하위 다문화 보육효능감 영역에서도 보육효능감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수업지도, 또래관계지도, 문화존중지도에서 각각 다문화 보육효능감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한편 보육 효능감의 하위 카테고리별로 다문화 보육 효능감의 차이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교육지도'에 대한 보육효능감을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나누어서 다문화 보육효능감의 차이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집단의 구분은 교육지도에 대한 효능감의 평균(표준편차)이 3.74 (.56)이기 때문에 이 평균치를 기준점으로 하여 그 위에 속하는 반응을 보인 피조사자는 높은 집단(n=306, 평균=4.16, 표준편차=.33)으로, 그 아래에 속하는 반응을 보인 피조사자는 낮은 집단(n=285, 평균=3.30, 표준편차=.38)으로 각각 분류하였다. 분석 결과,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교육지도 효능감이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에 비해 전체 다문화 보육효능감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하위 다문화 보육효능감 영역에서도 교육지도 효능감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수업지도, 또래관계지도, 문화존중지도에서 각각 다문화 보육효능감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번에는 '심리지도'에 대한 보육효능감을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나누어서 다문화 보육효능감의 차이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집단의 구분은 심리지도에 대한 효능감의 평균(표준편차)이 3.87(.58)이기 때문에 이 평균치를 기준점으로 하여 그 위에 속하는 반응을 보인 피조사자는 높은 집단(n=302, 평균=4.28, 표준편차=.34)으로, 그 아래에 속하는 반응을 보인 피조사자는 낮은 집단(n=288, 평균=3.45, 표준편차=4.5)으로 각각 분류하였다. 분석 결과,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심리지도 효능감이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에 비해 전체 다문화 보육효능감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하위 다문화 보육효능감 영역에서도 심리지도 효능감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수업지도, 또래관계지도, 문화존중지도에서 각각 다문화 보육효능감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표 1> 보육효능감의 차이에 따른 다문화 보육효능감

| 변인 | 집단 | 하위 카테고리 | | | | | | 다문화 보육효능감 | |
|---|---|---|---|---|---|---|---|---|---|
| | | 수업 지도 | | 또래관계 지도 | | 문화 존중 지도 | | M(SD) | t치 |
| | | M(SD) | t치 | M(SD) | t치 | M(SD) | t치 | | |
| 교육지도 | H 집단 | 3.33 (.72) | 7.15*** | 3.96 (.71) | 6.06*** | 3.60 (.67) | 8.95*** | 3.63 (.63) | 8.34*** |
| | L 집단 | 2.95 (.53) | | 3.64 (.57) | | 3.17 (.46) | | 3.25 (.43) | |
| 심리지도 | H 집단 | 3.34 (.69) | 7.20*** | 4.02 (.66) | 8.36*** | 3.62 (.64) | 9.88*** | 3.66 (.59) | 9.66*** |
| | L 집단 | 2.96 (.56) | | 3.58 (.59) | | 3.15 (.50) | | 3.23 (.47) | |
| 전체 | H 집단 | 3.32 (.72) | 7.14*** | 3.99 (.70) | 7.47*** | 3.60 (.67) | 9.56*** | 3.64 (.63) | 9.15*** |
| | L 집단 | 2.94 (.52) | | 3.59 (.55) | | 3.15 (.43) | | 3.23 (.41) | |

***p<.001

## 2. 다문화 보육효능감의 인지와 관련된 요인에 대한 분석

다문화 보육효능감의 인지와 관련된 요인에 대한 분석에 앞서 먼저 교사의 다문화 보육효능감의 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설정한 4가지의 관련성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였다. 검토를 위해 먼저 다문화 가정 아동보육에 대한 '관심, 지식, 노력' 요인의 평균(M) 및 표준편차(SD)를 구하고, 이들 요인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해 상관관계를 구한 결과, <표 2>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이 3요인은 상호 유의미한 관련성이 보였다.

<표 2> 3요인의 상관관계

| | 관심 | 지식 | 노력 |
|---|---|---|---|
| 관심 | - | .65** | .29** |
| 지식 | | - | .32** |
| 노력 | | | - |

**p<.01

이번에는 이 3요인은 다문화 가정 아동보육의 경험 유무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다문화 가정 아동보육 경험 교사(291명)와 무경험 교사(391명)를 대상으로 이 3요인의 각각에 대해서 t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3>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이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다문화 가정 아동보육 경험의 유무에 따라 다문화 보육 아동보육에 대한 관심, 지식, 노력이라고 요인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본 연구에서 설정한 다문화 가정 아동보육과 관련된 교사의 4가지 요인, 즉 다문화 가정 아동보육에 대한 관심, 지식, 노력, 경험이라고 하는 요인이 상호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번에는 이 4요인이 다문화 보육효능감과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다문화 가정 유아보육에 대한 관심의 정도에 따라 다문화 보육효능감이 다른지를 분석하기 위해 관심의 정도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나누어서 다문화 보육효능감의 차이에 대한 t검정을 실시하였다. 집단의 분류기준은 관심이 "매우 있다"와 "그런대로 있다"는 관심의 정도가 높은 집단(n=588)으로, "별로 없다"와 "전혀 없다"는 관심의 정도가 낮은 집단(n=133)으로 각각 분류하였다. 분석 결과, <표 4>에서 알 수 있듯이 다문화 가정 아동보육에 대한 관심의 정도에 따라 전체 다문화 보육효능감만이 아니라, 하위 다문화 보육효능감에서도 각각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다문화 가정 유아보육에 대한 지식의 정도에 따라 다문화 보육효능감이 다른지를 분석하기 위해 지식의 정도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나누어서 다문화 보육효능감의 차이에 대한 t검정을 실시하였다. 집단의 분류기준은 관심이 "상당히 알고 있다"와 "대체로 알고 있다"는 지식의 정도가 높은 집단(n=117)으로, "잘 모른다"와 "전혀 모른다"는 지식의 정도가 낮은 집단(n=231)으로 각각 분류하였다. 분석 결과, <표 4>에서 알 수 있듯이 다문화 가정 아동보육에 대한 지식의 정도에 따라 전체 다문화 보육효능감만이 아니라, 하위 다문화 보육효능감에서도 각각 유의한

<표 3> 다문화 가정 아동보육 경험의 유무에 따른 차이에 대한 분석결과

| | 관심 | t치 | 지식 | t치 | 노력 | t치 |
|---|---|---|---|---|---|---|
| | 평균(SD) | | 평균(SD) | | 평균(SD) | |
| 경험자 | 3.07(.58) | 3.16** | 3.12(.56) | 5.84*** | 2.45(.57) | 4.25*** |
| 무경험자 | 2.92(.65) | | 2.85(.63) | | 2.27(.52) | |

SD=표준편차, **p<.o1, ***p<.001

<표 4> 각 요인에 따른 다문화 보육효능감

| 변인 | 집단 | 하위 카테고리 | | | | | | 다문화 보육효능감 | |
|---|---|---|---|---|---|---|---|---|---|
| | | 수업 지도 | | 또래관계 지도 | | 다문화 존중 지도 | | M(SD) | t치 |
| | | M(SD) | t치 | M(SD) | t치 | M(SD) | t치 | | |
| 관심 | H집단 | 3.22 (.78) | 6.07*** | 3.89 (.81) | 5.04*** | 3.43 (.64) | 5.74*** | 3.51 (.62) | 6.76*** |
| | L집단 | 2.79 (.59) | | 3.51 (.64) | | 3.09 (.53) | | 3.12 (.51) | |
| 지식 | H집단 | 3.40 (.65) | 6.78*** | 4.03 (.94) | 5.43*** | 3.61 (.64) | 8.11*** | 3.68 (.64) | 7.99*** |
| | L집단 | 3.00 (.79) | | 3.70 (.67) | | 3.23 (.59) | | 3.31 (.57) | |
| 노력 | H집단 | 3.31 (.60) | 6.38*** | 3.96 (.84) | 5.28*** | 3.52 (.60) | 7.30*** | 3.60 (.58) | 7.47*** |
| | L집단 | 2.96 (.87) | | 3.66 (.67) | | 3.20 (.60) | | 3.27 (.60) | |

***p<.001

차이가 나타났다.

다문화 가정 유아보육에 대한 노력의 정도에 따라 다문화 보육효능감이 다른지를 분석하기 위해 노력의 정도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나누어서 다문화 보육효능감의 차이에 대한 t검정을 실시하였다. 집단의 분류기준은 관심이 "상당히 노력하고 있다"와 "그런대로 노력하고 있다"는 노력의 정도가 높은 집단(n=376)으로, "그다지 노력하고 있지 않다"와 "전혀 노력하고 있지 않다"는 노력의 정도가 낮은 집단(n=344)으로 각각 분류하였다. 분석 결과, <표 4>에서 알 수 있듯이 다문화 가정 아동보육에 대한 노력의 정도에 따라 전체 다문화 보육효능감만이 아니라, 하위 다문화 보육효능감에서도 각각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다문화 가정 유아보육에 대한 경험의 유무에 따라 다문화 보육효능감이 다른지를 분석하기 위해 경험이 있는 교사(n=284)와 경험이 없는 교사(n=381)의 다문화 보육효능감의 차이에 대한 t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5>에서 알 수 있듯이 다문화 가정 아동보육에 대한 경험의 유무에 따라 전체 다문화 보육효능감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하위 다문화 보육효능감에서는 교육지도와 문화존중지도에서는 각각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지만, 또래관계지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5> 경험의 유무에 따른 다문화 보육효능감

| 변인 | 구분 | 하위 카테고리 | | | | | | 다문화 보육효능감 | |
|---|---|---|---|---|---|---|---|---|---|
| | | 수업 지도 | | 또래관계 지도 | | 다문화 존중 지도 | | M(SD) | t치 |
| | | M(SD) | t치 | M(SD) | t치 | M(SD) | t치 | | |
| 경험 | 있음 | 3.24 (.65) | 2.71** | 3.89 (.60) | 1.69 | 3.44 (.59) | 2.64** | 3.52 (.54) | 2.73** |
| | 없음 | 3.07 (.85) | | 3.78 (.90) | | 3.34 (.65) | | 3.39 (.66) | |

**p<.01

##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다문화 가정 아동보육에 대한 보육교사의 역량을 지원하기 위해 교사의 다문화 보육 효능감의 인지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와 관련된 요인을 분석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2가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으며, 연구문제에 따라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 보육효능감과 다문화 보육효능감의 관련성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표 4>와 <표 5>에서 알 수 있듯이 두 요인은 전체 및 하위 카테고리 간에서 모두 밀접한 관련성을 나타내었다. 이 결과는 교사의 다문화 보육효능감의 인지라고 하는 문제는 교사의 일반 보육효능감의 문제와 결코 무관하지 않는 것을 의미라고 있기 때문에 다문화 보육효능감의 강화라는 문제를 생각할 때, 하나의 제안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즉 앞으로 교사의 다문화 보육효능감의 문제를 지원해나갈 때, 교사의 일반 보육효능감의 강화라고 하는 문제와 관련지어서 생각해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종래처럼 교사를 대상으로 다문화 교육을 한다든지, 다문화와 관련된 정보제공이나 이에 대한 이해나 노력을 유도하는 지원도 중요하지만, 본 연구 결과는 교사의 일반 보육효능감의 강화를 위한 지원도 다문화 가정 아동보육에 있어 교사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이것은 효능감이라고 하는 개념이 하나의 특정 문제에 대한 인지가 유사한 상황에서의 효능감 인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는 일반화의 개념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Bandura, 1986, 1997).

둘째, 다문화 가정 아동보육에 대한 교사의 「관심, 지식, 노력, 경험」 요인과 다문화 보육효능감과 관련성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먼저 다문화 가정 아동보육에 대한 관심의 정도에 따라 교사의 다문화 보육효능감이 다르게 나타났다. 즉 다문화 가정 아동보육에 대한 관심이 많은 교사일수록 다문화 보육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문화 가정 아동보육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위한 노력의 정도가 높을수록 교사의 다문화 보육효능감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앞으로 보육교사의 다문화 보육효능감이 강화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다문화 가정 아동보육에 대한 교사의 관심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든지, 다문화 가정 아동보육에 대한 정보제공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다문화 가정 아동보육의 경험이 있는 교사는 다문화 가정 아동보육에 대한 경험이 없는 교사보다 다문화 보육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교사의 다문화 보육효능감의 강화를 지원하는 전략 중에 하나로서 가능한 모든 교사들이 다문화 가정 아동보육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하위 카테고리 분석가운데 또래관계지도에서는 경험 유무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문화 가정 아동의 또래관계형성이라고 하는 문제는 교사의 다문화 보육경험과는 관계성이 적다는 본 연구 결과는 이 문제가 교사의 노력만이 아니라, 또래 아동의 요인이라고 하는 문제도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고 하겠다. 즉 수업 지도이나 다문화 존중 지도와 같이 교사의 역할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문제에 대해서는 교사의 다문화 보육효능감의 문제가 중요한 요인으로서 작용하지만, 또래관계 형성과 같이 교사 요인만이 아니라, 또래라고 하는 다른 요인의 영향력도 개입되는 경우에는 교사의 다문화 보육경험의 관련성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다고 하겠다.

다문화 가정 아동의 또래관계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종래의 연구결과를 보면 다문화 가

정 아동의 또래관계의 어려움을 지적하거나 이로 인한 자아정체성의 혼란 등의 문제를 지적하거나 (김갑성, 2006), 다문화 가정 아동의 집단따돌림을 당하는 비율이 일반 아동이 집단따돌림을 경험하는 비율보다 훨씬 높다는 연구 보고(조영달, 2006; 설동훈 외 8인, 2005) 등이 있다. 이것은 곧 다문화 가정 아동의 또래관계문제라고 하는 것은 결코 단순하지 않으며 보다 다양한 요인이 복잡하게 관련되어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하겠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다문화 가정 아동보육에 대한 보육교사의 역량을 지원하기 위해 타문화 및 다문화 가정 아동보육과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제공을 한다든지, 가능한 많은 교사들이 다문화 가정 아동보육의 경험을 갖도록 배려하는 것, 그리고 교사의 일반 보육효능감의 강화를 위한 지원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할 수 있다고 하겠다.

앞으로의 연구는 교사의 다문화 보육효능감이 교사의 일반 보육효능감의 인지, 다문화 가정 아동보육에 대한 관심이나 이해하고자 하는 교사의 의지 등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 전략 수립과 그 효과에 대한 확인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조사연구라고 하는 연구 방법을 채택하고 있지만, 앞으로의 연구는 교사의 다문화 보육효능감과 관련된 요인을 좀 더 구체적이면서 다면적 접근을 위해서 심층 면접이나 관찰 등을 통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끝으로 현정환의 연구(2010)에서 보면 다문화 가정 아동보육에서 교사가 호소하는 문제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다문화 가정 아동보다는 그 부모에 대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교사의 다문화 보육효능감이라고 하는 것은 본 연구에서처럼 아동에 초점을 맞추어진 척도가 아니라, 다문화 가정 아동의 부모에 초점을 맞추어 이들과의 관계형성이나 다양한 가족지도 프로그램과 관련된 교사의 효능감에 대한 내용으로 교사의 다문화 보육효능감의 척도가 개발될 수 있도록 연구되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구차순(2007). 결혼이주여성의 다문화가족 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20, 319~360.

김갑성(2006). 한국 내 다문화가정의 자녀교육 실태조사 연구, 서울교육대학교 대학원석사학위 청구논문.

김경숙・공진희・이민경(2007). 교사를 통해 본 다문화 가정 유아 부모의 특성과 유치원 교육 참여에 대한 질적 연구, 특수아동교육연구, 9(4), 311~335.

김신영(2003). 유아교육 현장에서 예비 유아교사들이 인식한 교사들의 어려움, 유아교육연구, 23(2), 27~44.

김희선(2007). 다문화가족 지원 현황 분석, 한국민족연구원, 현대의 다문화가족, 50~86.

대통령자문 빈부격차 차별시정위원회(2006).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대책 확정, 혼혈인 및 이주자의 사회통합 지원방안. 제74회 국정과제회의.

통계청(2006). http://www.kostat.go.kr/

통계청(2009). http://www.kostat.go.kr/

문순영(2007). 현행법(안)을 통해 본 국제결혼 여성이주민을 위한 사회적 지원체계에 대한 탐색적 연구, 여성연구, 72(1), 109~142.

박미경・엄정애(2007). 결혼이민자 가정의 유아를 담당하는 교사가 느끼는 어려움, 한국교원교육연구, 24(1), 5~29.

신란희(2005). 국제결혼 여성의 가족, 일 그리고 정체성: 우즈베키스탄과 필리핀 여성의 생애사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인류학과 석사학위논문.

설동훈・김윤태・김현미・윤홍식・이혜경・임경택・정기선・주영수・한건수(2005). 국제결혼이주여성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 정책방안, 보건복지부.

장안실(2003). 다문화교육이 한국교사교육과정 개혁에 주는 시사점, 교육과정연구, 21(3), 409~431.

정선희(1997). 다문화 교육에 관한 유아교사의 인식과 실태조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정은희(2004). 농촌지역 국제결혼 가정 아동의 언어발달과 언어 환경, 언어치료연구, 13(3), 33~52.

조영달(2006). 다문화 가정의 자녀교육 실태 조사,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연구과제 2006-이슈-3.
지성애, 정대현, 김경숙, 김현주, 채영란, 김지예(2006).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다문화교육 실태와 교사의 인식 비교, 유아교육학논집, 10(4), 351~369.
최금해(2005). 한국남성과 결혼한 중국 조선족 여성들의 한국에서의 적응기 생활체험과 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5, 219~224.
양옥승・임승렬・박은혜・조부경(1997). 유아교사 양성대학 평가, 한국교사교육, 12(1), 30~56.
오성배(2005). 코시안(Kosian) 아동의 성장과 환경에 관한 사례연구, 한국교육, 32(3), 61~83.
오성배(2007). 국제 결혼 가정 자녀의 교육기회의 실태와 대안 모색, 인간 연구, 제12호.
윤형숙(2004). 국제결혼 배우자의 갈등과 적응, 한국사회학회·한국문화인류학회 공동연구, 한국의 소수자, 실태와 전망, 경기도: 한울아카데미, 321~349.
이미혜(2004). 다문화 교육에 대한 유치원 교사와 아버지의 인식 및 교육 실제 비교,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임경혜(2004). 국제결혼 사례별로 나타난 가족문제에 따른 사회복지적 대책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석실(2007). 다문화시대 유아교사교육의 방향 모색,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4(1), 29~53.
현정환(2003). 보육실습이 예비보육교사의 보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학회지, 24(6), 117~131.
현정환(2008). 보육시설이용 다문화 가정부모의 보육에 대한 기대 및 문제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보육학회지, 8(4), 31~47.
현정환(2010). 다문화 가정 유아 보육의 지원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적 연구, 한국아동학회지, 31(1), 235~248.
Bandura, A. (1977). Self-efficacy :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 191~215.
Bandura, A. (198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 A 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s, NJ : Prentice-Hall.
Brown, J. S., Collins, A., & Duguid, P. (1989). Situated cognition and the culture of learning, *Educational Researcher, 18(1),* 32~42
Gollnick, D. M., & Chinn, P. C. (1994). *Multicultural education in a pluralistic society*(4th Ed.), New York: Merrill.
Guyton, E. M. & Wesche, M. V.(2005). "The Multicultural efficacy Scale: Development, Item Selection, and Reliability", *Multicultural Perspective,* 7(4), 21-29.
Korthagen, F. A. J. (2001). *Linking Practice and theory: The pedagogy of realistic teacher education,*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Seattle, WA.
Ramsey, P.G.(1982). *Multicultural education in early childhood.* In Jensen, M.A. and Chevalier, Z.W.,(Ed.) Issues and advocacy in early childhood, New York: Teachers College Press.
Seefeldt, C.(2005). *Social studies for the preschool/primary child,* New Jersey: Pearson Merrill Prentice Hall.
鎌樋雅彦, 樋口辰, 清水直治(1982). Locus of Control 尺度の作成と信頼性, 妥当性の檢討, 教育 心理學研究, 30, 38～43.
三木知子, 櫻井茂男(1998). 保育專攻短大生の保育者効力感に及ぼす教育實習の影響, 日本教育心理學研究, 46, 203～211.

• 논문접수일 : 2010년 11월 15일
• 심사완료일 : 1차 - 2010년 12월 23일
2차 - 2011년 01월 28일
• 게재확정일 : 2011년 02월 01일